

**2020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대 과학 기술의 본질은 자연 현상에 대한 이론적 법칙을 발견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의 역할을 넘어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관념 체계로까지 확대되었다. 즉, 과학 기술은 진리의 발견과 활용이라는 목적을 넘어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과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평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첫 번째 입장은 과학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므로 자유롭게 발전하도록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과학 기술자의 연구는 지적 호기심이 동기가 되어 순수하게 학문적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과학 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주관적 견해가 개입될 수 없으며, 어떠한 연구가 가져올 결과를 미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과학 기술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비판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입장은 과학기술도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윤리적 검토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관찰과 실험 과정에서는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지만, 연구 목적을 설정하거나 연구 결과를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으므로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 미국의 기술학자이자 경영학자인 테일러(F. Taylor)는 1911년에 출간한 『과학적 관리법(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이라는 책에서 과학적 관리법이란 노동을 시간, 동작이라는 두 요소로 환원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테일러 시스템은 작업을 요소 동작으로 분해하고 생산 공정의 표준적인 시간을 상정하여 하루의 과업을 설정하고, 스톱워치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작업 방법을 산출한다. 테일러는 또한 노동자의 생산 작업을 영화 필름에 담아 동작을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작업을 조직하려 했다. 대량생산시대의 노동 합리화에 대한 지식이 테일러 시스템으로 탄생했다. 흥미로운 점은 테일러 시스템이 영화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최적의 조작 조건을 산출하여 노동 강도를 증대시킬, 즉 노동자의 생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에 대한 테일러의 연구에는 영화가 체계적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면 기계공의 조작을 하루 동안 촬영한 뒤, 등을 구부리거나 하는 행동 따위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자를 배치하면 좋을지를 전문가가 고안한다. 즉 테일러 시스템이란 인간의 동작을 촬영하고 그것을 추상화하는 과학적 실험이었던 것이다.

(뒷면에 계속)

(다) 영화 〈모던 타임즈〉는 근대 기술문명의 속성을 인상적인 시각적 상징을 통해 함축한다. 초침이 돌아가는 시계를 클로즈업하면서 시작된 영화는, 이어서 측사에서 몰려나오는 양 떼와 지하철을 이용해 공장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교차 편집해서 보여준다. ㉠찰리 채플린이 연기하는 주인공을 포함한 영화 속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쉴 새 없이 밀려들어오는 기계의 너트를 조인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사장의 명령에 따라 기계의 작업 속도가 조절되면 이들의 움직임 역시 그에 맞춰진다. 마치 생산시설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 것처럼. 심지어 극 중 채플린은 동료와 다투면서도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작업을 멈춘 점심시간에도 너트 조이는 동작을 강박적으로 반복한다. 격무와 스트레스로 지쳐버린 그는 결국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라) 기실 ㉡나는 약 오년간 전진(戰塵)* 속에 묻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이다. 육군병원에서 퇴원하고 서울에 도착하던 날 일이었다. 아버지와 택시를 잡아타고 교통이 복잡한 어느 로터리에서였다. 달리던 차가 십자로에서 차단신호와 함께 급정거를 하고 맞은편에서 육중한 소음을 울리며 전차(電車)**가 돌진해 오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과 흥분에 싸이면서 소대장다운 목소리로, “탱크다! 바주카***!”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마주보았다. 나는 그냥 멧쩍게 웃었다. 아버지는 내가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착각을 일으킨 것도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오년간 나에게 강력하게 작용해온 유일한 전투의 훈련 속에서 이루어진 것뿐이었다. 돌진해 오던 전차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정확한 사정거리(射程距離)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뿐이었다.

*전진(戰塵): 싸움터에서 이는 먼지나 티끌.

**전차(電車): 공중에 설치한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지상에 설치된 궤도 위를 다니는 차.

***바주카(bazooka): 원통 모양의 포(砲)에 로켓탄을 제어 발사하는 휴대용 무기.

(마)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근대 서양의 자연법사상에서 천부 인권으로 강조되었던 자유권은 절대 왕권이나 국가의 법률 등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였다.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실현한다는 의미도 된다. 자유권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유권과 선택권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선택권을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선택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려면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 자율성이란 외부의 영향이나 즉흥적인 충동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자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율성은 인간을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 만들며, 나아가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요건이다

1-1. 제시문 (나)와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첫 번째 입장을 ㉡두 번째 입장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200자±20자) [10점]

1-2. 제시문 (다)의 ㉠찰리 채플린이 연기하는 주인공과 제시문 (라)의 ㉡나가 보이는 행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문 (마)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서술하시오. (300자±20자) [20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의 한계 속에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개발 방식을 택했다.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과 부산을 포함하는 영남권의 두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삼아 투자와 지원책을 집중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 부진한 지역은 서·남해의 해안과 도서 지역, 태백산맥 지역에 몰려 있게 되었다. 거점 개발은 성장 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파급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었지만, 개발 이후 오히려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거점으로 선택된 지역은 성장을 지속했으나, 주변 지역은 거점 지역으로 인구나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정체되거나 쇠퇴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와 같은 지역 불균등 현상이 ‘사회적 양극화’ 뿐 아니라 ‘지리적 양극화’ 라는 이중의 어려움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불균등 현상은 점차 더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경제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성장만을 추진하는 것보다 계층 간 분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 불균등을 해소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선진 복지 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나)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많은 취약점들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이들 취약점뿐 아니라 무한 경쟁 상황에 직면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이겨 내기 위해 몇 가지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 세계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래 주도 산업인 지식 정보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을 마련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력 도입, 노인 노동력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생산 가능 인구 확보 대책도 필요하다. 셋째, 실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실업은 사회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정부 대책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은 자유시장 경제를 굳건히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실업 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다) 대한민국헌법 제9장 경제

제119조

-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 정의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의,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서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다. 정의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 전체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면서 국가 법률의 준수와 국가 질서에 대한 순응이 정의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로마인 율피아누스(D. Ulpianus)는 ㉠**정의란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 의지’** 라고 설명하면서, 정의의 법적 의미 이외에 재화의 분배와 관련된 의미를 강조하였다. 사회적 기본 재화는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재화를 좀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재화는 유한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한다. 이때 정의는 ‘각자의 몫’ 이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분배 기준이 된다.

(뒷면에 계속)

(마)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무엇에 기준하여 판단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유용한 작업이다. 정의의 원칙은 크게 공적(merit) 원칙과 필요(need)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원칙은 개인의 노력에 의한 공적에 비례하여 정당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다. 필요 원칙은 정의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필요 원칙은 인간이 생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의식주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정의라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2-1. 제시문 (다)의 헌법 119조 ①항과 ②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라)의 ㉠정의란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 의지’와 제시문 (마)에 나타난 정의에 관한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헌법 119조의 취지를 서술하시오. (250자±20자) [20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근 인기 프로그램 중에 ‘치유의 숲’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숲을 통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죠. 숲만큼 치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숲 치유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숲은 암을 치유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특정 숲에는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숲을 치유의 장소로 삼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인간이 치유를 위해 숲을 찾는다는 것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무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합니다. 간혹 사람이 나무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런 사례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대개 인간이 그런 나무를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만 벌어지는 일이죠…(중략)…나는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누구에게도 나의 상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치유했습니다. 스스로 상처를 치유한 것은 상처가 깊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처를 반드시 치유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평생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까요. 그렇게 많은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치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처만큼 중요한 것은 치유력일 것입니다. 인간도 나무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치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내맡긴다면 치유력은 날로 줄어들 것입니다. 반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터득하면 어지간한 상처에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깊은 대숲에 홀로 앉아서

거문고 연주도 하고 길게 휘파람도 불어보네.

숲이 깊어 사람들은 알지 못하거니

㉠밝은 달이 찾아와 비추는구나.

獨坐幽篁裏, 彈琴復長嘯.

深林人不知, 明月來相照.

중국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가 지은 <죽리관(竹裏館)>이다. 혼자 있을 때면 나는 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책을 읽는다. 조용한 가운데 책을 읽을 때도 있지만, 고요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면 늘 음악을 듣는다. 고요함만 있으면 고요함을 알 수 없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고요의 무게를 짐작한다. 깊은 대숲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길게 휘파람을 부는 것은 자기 마음속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속에 담긴 뜻을 알아주지 않는다.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다.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이는 오직 밝은 달이다. 서로 비추는 것은 명월과 시인 자신이 마음으로 감응한다는 의미다. 인간 세상을 벗어나 깊은 대숲에서 천지자연과 감응하는 모습에서, 그가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은자임을 보여준다.

(다) 제주도 비자림은 가장 남쪽에 있고 규모도 커서 습기가 많다. 기후가 온난한 제주도는 비자나무가 생장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중략)…비자림의 나무들은 힘들 때 몸을 기울여 다른 나무에 기대고 있다. 나는 ㉡옆에 있는 나무를 안고 있는 비자나무에 다가서서 힘들지 않은 지 물어봤다. 혼자서도 똑바로 서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다른 존재까지 자기 몸에 기대고 있어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비자나무는 당연히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굳이 물어본 이유는 비자나무가 겉으로는 그리 힘들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에 힘든 게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내색하는 것과 내색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성격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삶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삶을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상대방에 대한 원망은 사라진다. 더불어 사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가능할 지도 모른다.

(뒷면에 계속)

(라) 중국 회화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인 명나라 주담(朱澐, 흔히 팔대산인으로 불린다.)의 『안만책(安晩冊)』 첫 장을 펼치면 바로 <병화(瓶花)>를 만나게 됩니다.…(중략)…<병화>의 화병은 마른 갈필로 삐뚤삐뚤하게 그려졌습니다. 화병의 윤곽선은 한 획으로 그려졌지만 술개가 토기를 낚아채는 쾌속의 일필휘지가 아니라 느리게, 비틀거리며 그려졌습니다. 마치 아픈 그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화가는 화병의 온몸에 금을 긋습니다. 화병은 부서져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형태를 유지하면서 탈속적인 묘한 추상미를 느끼게 만듭니다. 어디인지 모르게 아리는 비애를 품고서 말입니다. 그 비애가 얼룩처럼 묻어 있는 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꽃 한 송이가 담겨 있습니다. 결가지 있는 꽃대의 모양을 보면 한란(寒蘭)의 종류인 듯합니다. 한란이라면 가을과 겨울에 피는 꽃이 아닙니까. 겨울을 견디는 꽃은 여백이 더 넓게 설정된 오른쪽 공간으로 휘어져 나가면서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서툰 듯 고졸*하면서 극도로 간결한 그 속에 무궁한 함축을 담은 팔대산인의 감필** 화풍이 잘 나타난 그림입니다.…(중략)…팔대산인이 한 다리로 견딘 지상의 삶은 고단하고 가난했습니다. <병화>의 화병과 꽃에는 그의 아픈 삶이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졸(古拙): 기교가 없으면서 예스럽고 소박하다.

**감필(減筆): 붓으로 칠하는 횟수를 줄이고 형상을 생략하는 수묵화 화법의 하나.

(마)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너무 낙관적이고 감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기는커녕 과도한 우울로 고통을 겪는다. 우리는 이 세계의 문제와 부당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데, 그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지푸라기처럼 작고 약하게 느껴진다. 쾌활함은 일종의 성과물이고 희망은 축하할 일이다. 오늘날 산재해 있는 문제들은 대개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희망적으로 보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의 문제들이 우리의 의식을 끝없이 들볶는 바람에 우리는 희망적인 성향을 지켜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졌다.…(중략)…예술적 경험의 가장 이상한 특징으로 간혹 눈물을 흘릴 정도로 보는 이를 감동시키는 힘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괴롭거나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대면할 때가 아니라, 반대로 특별히 우아하고 사랑스러워 마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작품을 마주칠 때이다. 아름다움에 격렬히 반응하는 이 특별한 순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높이 41센티미터에 불과한, 상아로 만든 작은 성모마리아 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얼굴에 있다. 환영하는 얼굴, 누군가 우리를 보고 무조건 반가워하는 모습에서 보고 싶은 그런 표정이다. 그 앞에서 우리는 그런 미소를 만나게 되는 일이, 그런 미소를 선물 받는 일이 얼마나 드문지 깨닫게 된다. 또한 삶이 고단할수록 소박한 꽃그림은 우리를 더 깊이 감동시킨다. 눈물이 나온다면 이는 그 이미지가 얼마나 슬픈가에 반응해서가 아니다. 유리병 속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국화를 그린 사람은 그의 자화상이 말해주듯, 인생의 비극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그는 비극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반대쪽으로 더 강한 생명력을 뿜어냈던 것이다.

3-1.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깊은 대숲과 제시문 (다)의 제주도 비자림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서술하시오.(250자±20자) [15점]

3-2. 제시문 (마)의 핵심 논지를 제시하고, 그에 의거하여 제시문 (나)의 ㉠밝은 달이 찾아와 비추는구나, 제시문 (다)의 ㉡옆에 있는 나무를 안고 있는 비자나무, 제시문 (라)의 ㉢거기에 꽃 한 송이가 담겨 있습니다의 의미를 각각 서술하시오. (35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